



#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 02

2019 | Vol. 562

함께 만드는 축제 그리고 추억 (一緒に作るお祭り、そして思い出)

Photo : CHOI WONSEOK\_아키타\_제5회 한일포토콘테스트 INPAINTER GLOBAL상



## 일본의 설풍경전 & 전통문화전과 함께 맞이한 새해



1월 11일(금)부터 22일(화)까지 공보문화원에서 열린 '2019신년일본문화소개전:일본의 설풍경전&전통문화전'이 10일 동안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1월 중순 극심한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총인원 약 2,300명이 관람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올해 신년일본문화소개전은 일본의 설 풍습과 장식물 등을 소개하는 '일본의 설풍경전'과 예로부터 전래되어 온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전통문화전'을 함께 마련했다. 기모노, 다도, 마쓰리, 스모, 음식과 술, 전통예술, 전통미술 7개 분야로 나눠 전시하여,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외에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코너가 마련되었는데, 그중에도 특히 소원을 적어 거는 '에마'와 신년 운세를 점쳐보는 '오미쿠지' 그리고 새해 첫 붓글씨를 쓰는 '가키조메' 등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총 7회에 걸쳐 진행된 ‘초등학생 일본문화체험교실’에서는 일본문화 강의와 퀴즈, 토크 시청, 일본의 설놀이인 ‘가루타’ 게임 등을 실시했는데, 참가 어린이 모두 흥미로운 표정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12일과 13일에는 체험교실 참가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일본의 전통 절구와 떡메로 ‘떡메치기’를 실시하여 떡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월 16, 17일에는 ‘어서 오세요! 일본차(茶)의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일본차 대사 오가타 준코 씨가 진행한 일본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일본차 강의와 함께 생산지마다 맛이 다른 일본차의 특성 등을 소개하며, 물의 온도에 따라라도 맛이 달라지는 오묘한 차의 세계를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차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자와 함께 차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 이번 행사의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다이도게 쇼’에는 일본의 유명 다이도게 아티스트인 미쿠모 이오리 씨를 비롯해, 전통 다이도게 퍼포머 미호☆만게교 씨, 또 신예 아티스트 마메 씨가 출연해 코미디와 묘기를 아우르는 훌륭한 퍼포먼스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올해 관람객들은 ‘다양한 설 체험이 즐거웠다’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체험 코너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주었으며, 다이도게 공연 관객은 ‘최고의 퍼포먼스였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일본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는 시간이었다’라는 의견을 주었다. 또 일본차 워크숍 참가자는 ‘차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친절한 강사의 설명이 좋았다’ 등의 감상을 전했다.

2020년 신년일본문화소개전에서도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반영해,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 스펙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자!

한국인의 일본 취업지원 사업을 하는 일본 여성 기업가 가스가이 모에(春日井 萌) 씨. 최근, 한국인 학생이 주목하고 있는 일본 취업과 관련해서, 취업에 임하는 자세, 양국 취업의 차이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았다.

**언제부터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일한 관계에 관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나요.**

예전부터 양국 관계 개선에 이바지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룸메이트가 한국인이었습니다. 타지에서 비슷한 문화와 습관을 지닌 그녀와 사이 좋게 지냈지만, 사소한 일로 그 친구와의 인연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양국 관계가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대학 진학 시 한국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 한국 대학에 진학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졸업 후, IT 기업에 취업해서 베트남 주재원으로 일했지만, 역시 일본과 한국을 잇는 일을 하고 싶어서, 마음을 다잡고 한국에서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취업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현재 한국에서는 취업난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일손이 부족합니다. 이 상황을 잘 활용할 수 없을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대학 시절에도 일본 취업 준비를 위한 학생 단체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1학기에 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졸업

**いつから韓国に興味を持ち、日韓に携わる仕事がしたいと思い始めましたか。**

以前から日韓関係の改善に貢献したいと思っていました。高校2年でアメリカへ留学しましたが、その時のルームメイトが韓国人でした。異国の地で、似たような文化や習慣をもつ彼女と仲良くなりましたが、些細なことでその友人との縁が切れてしまいました。その時初めて、日韓関係が政府間だけでなく、個人レベルにまで影響を及ぼすことを実感しました。そのことがきっかけで、両国関係に関心を持ち、大学進学の際、韓国のことをより深く知るために韓国の大学へ進学することを決めました。卒業後は、IT企業に就職し、ベトナム駐在員として働いていましたが、やはり日本と韓国を繋ぐ仕事がしたいと思い、一心発起、韓国での起業を決意しました。

**就職支援事業を始めるようになったきっかけは。**

今、韓国では就職難が大きな社会問題となっています。一方、日本では働き手が不足しています。この状況を上手く活かさないかと思っていました。実は、大学時代にも日本就職の準備のための学生団体を運営したことがあり、1学期に30人ほどが集まっていました。しかし、自分が卒業した後は団体を主導する人がいなくなり、コミュニティが解散してしまいました。また、自分も求職活動をし



한 후 단체를 리드하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커뮤니티가 해체되었습니다. 또, 저도 구직활동을 하면서 혼자서는 정보도 없고, 취업 준비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고용 시장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인의 일본 취업지원 커뮤니티를 만들면 효율적인 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비즈니스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인의 일본 취업 현황은.

실제로 일본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적극적이라기보다, 한국에서 취업이 어려우니 제2의 선택지로서 일본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또 지방이 아니라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서 일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지방의 중소기업이 더 인재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어,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실제로 일본 취업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희망자의 반 정도입니다. 주위의 반대와 언어 문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일본 취업을 단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주로 어떤 학생이 일본에 취업하고 있나요.

일본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IT기업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호텔 등에서 한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이라면 일부러 일본에서 일할 의미가 없으며, 취업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능력보다는 가치관,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학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소극적인 이유에서 일본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넓은 시야와 큰 전망을 갖고 해외 기업에 도전하거나, 일본의 일하는 방법에 이끌려 일본 기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일본 취업에 임하는 생각이나 접근 방법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취업 시,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한국에서는 스펙을 중시하여 대학의 단위, 유학 경험, 외

ながら、一人では情報もなく、就職準備が大変なことに気が付きました。そこで、両国の雇用市場の事情を踏まえ、韓国人の日本就職支援コミュニティを作れば効率的な就労が可能ではないかと考えるようになり、ビジネスとして始めることにしました。

### 韓国人の日本就職の現状は。

実際に日本就職を考えている人は相当数います。しかし、その理由は積極的なものではなく、韓国での就職が難しいため、第二の選択肢として日本就職を考える人が多いのが現実です。しかし、外国で働くことはそれほど容易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また地方ではなく、東京などの大都市で働くことを希望する人が多いですが、実際は地方の中小企業の方が人材不足に悩んでいるため、希望通りの企業に就職することは容易ではありません。このような状況もあり、実際に日本就職を行動に移す人は、希望者の半数ほどです。周囲の反対や言語の問題、経済的な負担から日本就職をあきらめる人もいます。

### 主にどのような学生が日本に就職していますか。

日本ではプログラム開発をしているIT企業やサービスを必要とするホテルなどで韓国人を雇用しようとする企業が多いです。しかし、そのような企業であればわざわざ日本で働く意味がないと、就職をしない学生もいます。

中小企業の場合、日本語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可能な韓国人を雇おうとする企業が増えていますが、能力よりは価値観、自分の考えをもっている人を求めています。学生たちと話をしてみると、消極的な理由で日本就職を目指す人も多いですが、実際に、就職に成功する人は広い視野や大きな展望を持って海外企業に挑戦したり、日本での働き方に惹かれて日本企業に挑戦したりする人が多いです。私は、日本就職に臨む考え方やアプローチの仕方を変えようと努力しています。

### 就職における日韓の違いは。

韓国ではスペックを重視し、大学の単位、留学経験、外国語能力、ボランティア活動などの書類を比較し採用するかどうかを決めます。一方、日本では就職活動をしながら自己分析をし、価値観、目標、夢など自分の人生を振り返りながら「自分はどんな人間か」について考えます。企業も、この人はどんな人なのか、困難に直面し



국어 능력, 자원봉사 활동 등의 서류를 비교해서 채용을 결정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취업 활동을 하면서 자기 분석을 하고 가치관, 목표, 꿈 등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합니다. 기업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노력하고 극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도망치는 사람인지를 에피소드 등을 통해 알고 싶어합니다. 또, 대학 전공과는 상관없이, 입사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서 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택 사항이 많은 것이 일본 취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 취업 후에도 생활 면 등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일본에서 혼자 살면 가족이나 친구도 없기 때문에, 고독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 후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 가면 신입사원이나 유학생 등을 모아 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일본 생활을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거주지 선택이나 계약에 관한 문의가 많아, 도쿄의 부동산 관련 회사와 파트너 십을 맺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금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을 때는.

제가 소개한 사람이 신입사원이 되어 인사 관계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양국의 관계 개선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 구축에 힘쓰고 있는데, 개인이 일본 기업에 좋은 이미지를 주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되고, 양국 관계도 풀뿌리 차원에서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또 학생 취업 등으로 고민하던 교수님에게서 감사 인사를 들었을 때, 더욱 분발하게 됩니다.

### 앞으로의 목표는.

현재, 학교 등에서 취업 설명회, 기업 매칭 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해 가고자 합니다. 한국 학생이 일본 취업을 계기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면 합니다. 또, 앞으로 상황이 바뀌어 한국에서 간단하게 취업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일본 취직을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た時、努力して乗り越える人なのか、それとも逃げる人なのか等を自身のエピソードなどを通じて知りたがります。また、大学の専攻とは関係なく、入社後に総合的に判断して部署配置が行われるため、選択肢が多いのが日本の就職の特徴でもあります。

### 就職後にも生活面の支援などは行っていますか。

日本で一人暮らしをしながら、家族や友達もいないために孤独や不安を感じる人が多いです。就職後の生活をサポートするため、自分が帰国した際には新入社員や留学生などを集めた会を開くこともあります。コミュニティを形成し、日本での生活が楽しいと思ってもらえるよう、アフターケアに努めています。また、最近は居住地の選択や契約に関わる問い合わせも多く、東京の不動産関連会社とパートナーシップを結び、安心して居住できるような支援も行っています。

### 今の仕事をしながらやりがいを感じたときは。

自分が紹介した人が新入社員になり人事関係者から高評価を受けた時にやりがいを感じます。両国の関係改善、つまり人と人との関係の構築に力を入れています。個人が日本企業に良いイメージを与えれば、韓国に対するイメージも改善され、両国関係も草の根レベルでよくなると思います。また、学生の就業などで悩んでいた教授からお礼を言われると、もっと頑張りたいくなります。

### これからの目標は。

現在、学校等での就職説明会、企業マッチング等を行っていますが、特に教育に重点を置いて事業を行っていきたいです。韓国の学生が、日本就職をきっかけに自分の人生について振り返り、自分のやりたいことを見つけるお手伝いができればと思っています。また、将来、状況が変わり韓国で簡単に就職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学生たちが日本就職を1つの選択肢として考えてもらえるよう努力していきたいです。



## 돗토리현 구라요시시와 전라남도 나주시 교류

### 풍부한 자연, 역사와 미래를 활용한 구라요시

구라요시시(倉吉市)가 있는 돗토리현(鳥取県)은 일본 열도 본토의 서쪽 끝인 추고쿠 지방(中国地方) 북동부에 있다. 동서가 약 120km, 남북이 약 20~50km이며, 동서로 약간 좁고 긴 현이다. 남쪽은 추고쿠 지방의 최고봉인 다이센(大山) 산을 비롯한 추고쿠 산지가 이어지고 있다. 산지가 많은 지형이면서, 동부·중부·서부의 3대 강 유역에는 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이 지역의 중심도시로 발달하고 있다. 구라요시시는 현 중부를 흐르는 덴진가와(天神川) 강 유역에 있으며, 면적이 약 272km<sup>2</sup>, 인구가 약 5만 명인 지방도시다. 기후는 비교적 온난하고 봄부터 가을은 날씨가 좋으며,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등 사계절 변화가 확실한 자연환경을 갖춘 아름다운 곳이다.

시내에는 일본의 중요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된 우쓰부키 다마가와 지구(打吹玉川地区, 구라요시 시라카베 도조 거리(倉吉白壁土蔵の町並み))를 비롯해서, 에도 시대 말부터 전쟁 전까지 지어진 가옥과 도조(土蔵, 흙벽으로 만든 땅)가 많이 남아있다. 이 거리 풍경은 옛 모습을 남긴 정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라요시시 남부에 있는 세키가네(関金) 온천은 약 1,300년 전에 생긴 오래된 탕인 시로가네노유(白金の湯)로 일본에 알려져 있다. 투명하고 무색, 무미, 무취한 수질은 신경통, 류머티즘 등에 좋은 단순방사능천(라듐 온천)으로 에도시대에는 역참 마을과 병을 고치는 온천장으로 번영했다. 현재는 일본 명물 100선에 선정되어 있다.

또 구라요시시는 현재, 도쿄 2020년 올림픽·패럴림픽 경





구라요시 시라카베 도조 거리

기대회 종목에 들어간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 시설을 정비하는 등 ‘클라이밍 성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아시아 최고봉이 경기를 펼친 ‘IFSC-ACC 클라이밍 아시아선수권 구라요시 2018’이 개최되었다.

한국의 2014년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세계선수권대회의 암벽여제 김자인 선수도 출전하여, 리드 경기에서 멋지게 암벽을 올라 우승하는 등 아시아 14개국이 자랑하는 톱 클라이머 100명 이상이 열전을 펼치기도 했다.



구라요시 시라카베 도조 거리에 온 암벽여제 김자인 선수

### 나주시와 구라요시시의 교류

나주시와 구라요시시의 위도는 거의 동일 선상에 있으며, 기후와 풍토가 매우 비슷하고 농업을 중심으로 한 특산물도 많다. 특히 배는 두 시가 모두 힘을 쏟고 있는 등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이 인연이 되어, 1993년부터 교류를 시작했다. 이후, 오늘날까지 직원의 상호 파견이나 예술, 농업, 학생, 스포츠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 사업을 해왔다.

나주시의 매력은 여러 면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서 일본인에게도 뭔가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도시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 자매결연 25주년

이런 매력이 가득한 나주시와 구라요시시는 2018년 ‘자매결연 협약서’ 체결 25주년을 맞이했다. 10월에는 구라요시시 이시다 고타로(石田耕太郎)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돗토리현 중부지구 일한친선협회가 기획한 시민교류단



35명이 나주시를 방문했다.

이 기간에 '구라요시시·나주시 자매결연 25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어 두 시가 상호 우호 관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교류 발전에 매진하기 위한 교류 선언을 했다. 이 가운데 행정, 경제, 농업, 스포츠, 교육, 문화 5개 분야의 교류를 협력, 제휴해서 추진하고, 5년 후인 30주년 기념식을 구라요시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 선언에 따라 두 시의 시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친선이 한층 더 깊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치적 과제가 원인이 되어 한국과의 교류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스포츠, 문화, 청소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 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상호 이해, 사람이나 물건의 흐름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매력 도시, 나주 방문 사업

지금까지 돗토리현 중부지구 일한친선협회 기획 시민교류단이 나주시와 지속해서 교류하며, 대략 격년으로 상호 방문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앞서 말한 '구라요시시·나주시 자매결연 25주년 기념식' 외에, 금성관에서 개최된 나주시의 '정명 천년 기념식'에도 참석했으며, 혁신도시와 조선시대의 나주 읍성 터 견학, 시민 간의 교류사업을 통해, 특히 나주의 문화, 풍토, 역사의 이해 폭을 넓혔다.

정명 천년 기념식은 나주시가 속한 전라도라는 이름을 정



자매도시 결연 25주년 기념식 참석자

한 지 천 년이 된 것을 축하하는 식전이다. 이 자리에서 강인규 나주시장이 방문단을 소개하고 "11만 나주시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자, 큰 환영의 박수가 터진 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다.

또 1,000명에 이르는 대합창에서 나주 시민의 열정을 느꼈고, 역사적 건물인 금성관에 영상을 만들어 내는 조명 연출 미디어파사드도 매력적이었다.

###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우정을 키운다

이번 방문을 마치고 동 협회의 와타리 히로유키(亘 寛之) 회장은 "교류란 서로의 다른 문화, 습관, 가치관을 이해하고, 다문화 공생 의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남을 통해 우정을 키우는 것이므로, 만남이 없다면 서로의 우정과 신뢰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새로운 민간교류의 시대로 보고,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나이, 성별과 관계 없이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빛나는 천 년의 역사와 새로운 천 년의 비약을 시작한 매력 도시, 나주시를 구라요시 시민에게 소개하고 교류를 지속해 가고자 한다.

(집필: 구라요시시, 협력: CLAIR, Seoul)



정명 천년 기념식에서 축하하는 이시다 구라요시 시장

## 이이알티

성수동의 서울 숲 인근에 있는 이이알티(eert). 다다미와 일본식 미니 정원이 있는 공간에서 피크닉을 온 듯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바란다는 강동우 대표.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대인이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새로운 휴식 공간이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 일본식 카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이알티(eert)를 뒤집어서 읽으면 트리(tree)가 됩니다. 저는 일본에 자주 가는데, 신주쿠 공원이나 요요기 공원 등 도심 속 공원 같은 느낌이 좋아서, 서울 숲 인근에서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무가 주는 휴식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이알티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다미에 앉아서 가레이산 스이를 차용한 일본식 정원을 보면서, 창 너머로 봄에는 벚꽃이 날리고, 여름의 신록과 가을 단풍 그리고 겨울에 눈이 내리는 모습 등 계절감을 느꼈으면 합니다.

### 일본의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끼나요.

일본이 디자인을 대하는 자세나 관점, 공간 활용 등이 우리보다 앞서 있고, 또 섬세함이 좋아서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도시별로 느낌이 전부 다릅니다. 후쿠오카의 여유

로움도 좋아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쿄를 자주 찾고 있습니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풀어가다 보니 일본적인 분위기의 콘셉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 최근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일본 감성을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기본적으로 예전보다 서로에 대한 벽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양국 모두 삶을 중시하는 옐로(YOLO, You Only Live Once)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소확행(小確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등을 즐기게 되면서, 가까운 일본을 자주 찾게 되었고, 그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카페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인스타그램이나 매체 등을 보고 오신 분이 많습니다.





비슷한 콘셉트의 카페가 많은데, 이이알티만의 매력 포인트는.

공원 같은 카페에서 도시락은 물론, 커피와 차를 드시면서 천천히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쿄의 다이칸야마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는 여자분과 그 주변에서 뛰어노는 강아지의 모습 등이 인상 깊었는데, 여기서 영감을 얻어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다도구 등 대부분은 일본 제품으로, 한국에서는 자주 접할 수 없는 호지차는 물론 일본 술도 좋아해서 하이볼도 메뉴에 반영했습니다.

삼단 박스 메뉴는 신선한 제철 재료를 사용해서 계절에 맞춰 구성하고 있으며, 피크닉을 즐기는 분을 위한 테이블 아웃용 도시락도 준비할 생각입니다.

양국 문화를 즐기고 교류하는 장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생각하거나 고려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카페를 방문한 후, 일본에 가고 싶어졌다는 포스팅이 많은데, 이곳을 찾았던 분들이 다시 한번 일본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는.

연남동에도 카페를 오픈할 예정으로 어떤 콘셉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절감을 반영한 공간으로써 기억에 남는, 자주 찾게 되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오쿠보에 가면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일본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꽃과 신록의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거리 사이타마현 구키시

사이타마현 구키시(埼玉県 久喜市)는 풍요로운 자연환경의 혜택을 받은 곳으로 도심 접근성도 좋고, 살기 편한 홈 타운으로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간토(関東) 평야의 거의 중앙에 있으며, 인구가 약 15만 3천 명인 사이타마현 동북부의 거점 도시이자, 예로부터 교통과 물류의 거점으로 발전해 왔다. 2018년 2월 겐오도(圏央道, 수도권 중앙연락 자동차도로)가 전면 개통되면서 나리타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으로,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나리타 공항에서 직통버스로 운행하고 있다. 또, 도심에서 전차로 1시간 권내의 편리한 입지에 있으면서, 사진에 담고 싶은 꽃과 신록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



### 관광과 문화

사계절 내내形形色색의 꽃이 피는 색채의 거리

구키시는 벚꽃, 연꽃, 등꽃, 양귀비, 꽃창포, 라벤더, 코스모스 등 1년 내내 아름다운 꽃이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다양한 색채의 거리다. 6월 상순부터 하순에 걸쳐 꽃창포와 라벤더가 피어, 싱그러운 향기와 아름다운 블루의 세계에 둘러싸이게 된다. 개화에 맞춰 ‘꽃창포·라벤더 블루 페스티벌’이 개최되는데, 라벤더 굿즈 판매와 라벤더 스위





츠를 맛볼 수 있는 가게가 생기면서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10월 중순부터 11월 상순에는 코스모스 만남의 길에서 강의 양쪽 기슭에 이르는 10km에 걸쳐 꽃을 즐길 수 있다. 코스모스는 구키시의 시화로서 약 700명의 시민 자원봉사자가 씨를 뿌려 소중히 키운 것이다. 또 꽃의 개화에 맞춰 축제가 진행되며 매년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 수많은 애니메이션 팬의 성지 순례 코스

애니메이션 '러키☆스타'의 배경이 된 구키시에는 수많은 팬이 무대가 된 곳을 찾는 성지 순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대가 된 미야 신사(鷺宮神社) 앞 거리의 상가에는 캐릭터가 그려진 깃발이 내걸리고, 상점에서는 캐릭터 상품도 판매된다. 또 '러키☆스타'의 캐릭터 탄생을 축하하는 생일 이벤트 등도 개최되고 있다. 애니메이션으로 지역 부흥을 추진한 것이 주목을 받으며 '일본 애니메이션 성지 88곳'으로 인정되었다.

#### 역사와 문화로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구키시에는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고 육성되어, 요즘 세대로 전해진 귀중한 문화재와 사람의 마음이 담긴 역사

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매년 7월 12일, 18일에 개최되는 구키 제등 축제인 '텐노사마(天王様)'는 약 230년의 역사가 있다. 낮에는 신화와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 인형을 수레 위에 장식하고, 밤에는 사면에 500여 개의 제등을 장식한 '제등 수레'로 재빨리 변신하여, 회전하거나 서로 부딪치며 '싸움 축제'라 불리기도 한다. 호화찬란한 낮과 웅장한 밤, 모두를 즐길 수 있는 축제다. 또 구키시에서는 관광자원봉사 가이드가 시의 역사와 사적을 안내하며, 환대하는 마음으로 방문자 여러분께 구키시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 시티 프로모션

구키시에서는 시티 프로모션을 추진하여 누구나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거리, ‘살기 잘했다’ ‘계속 살고 싶다’라고 실감할 수 있는 거리를 지향하고 있다. 구키시의 시티 프로모션은 일본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찰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구키시 오리지널 댄스, 유튜브 조회 수 58만 뷰 돌파

구키시에서는 시의 노래를 댄스풍으로 편곡해서 오리지널 댄스를 만들었다. 2016년 제작한 구키시 홍보 비디오 ‘1000명 구키 댄스’에 시내 초중고생을 비롯한 3,058명이 출연했다. 또 시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나 학교 행사에 구키 댄스를 도입하여 확산시키고 있다. 이 구키 댄스 홍보 비

디오를 통해 구키 시민의 단결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시공식 활동 채널 : 1,000명 구키 댄스

<https://www.youtube.com/watch?v=eJK7Z3fPzqI>

고등학생에 의한 오리지널 쿠키 콘테스트 ‘쿠키 코시엔’ 개최  
구키(Kuki)시라는 지명과 쿠키를 내걸고 2014년부터 고등학생에 의한 오리지널 쿠키 콘테스트가 개최되고 있다. 5회째를 맞이한 2018년에는 시내뿐만 아니라 시외에서도 총 9개교가 참가한 가운데, 고등학생들이 쿠키 시식 배포와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취향을 저격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행사장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으며, 우승 학교의 쿠키가 실제로 상품화된 작품도 있어, 앞으로가 더욱 주목되는 이벤트다.



### 맺음말

구키시에서는 꽃을 주제로 한 이벤트나 웅장한 제등 수레가 시내를 순회하는 여름 축제 등 계절을 느끼고,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림이 되는’ 매력적인 장면이 많다. 또 구키시의 매력이 구키 시민이 추는 구키 댄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동영상으로 업로드되고 있으니 꼭 확인 바라며, 많은 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집필: 구키시, 협력: CLAIR,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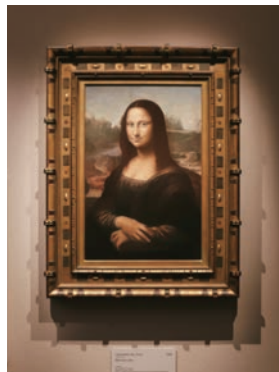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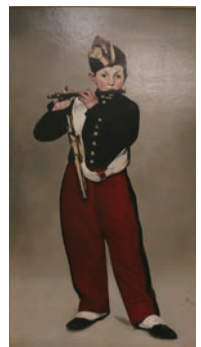
## 세계의 명화를 한눈에 감상하는 **오츠카 국제미술관**

일본 시코쿠 도쿠시마현(徳島県)에는 아주 특별한 미술관이 있다. 바로 '오츠카 국제 미술관(大塚国際美術館)'이다. 우리에게는 이온 음료로 익숙한 오츠카제약에서 오츠카 그룹 창립 75주년을 기념하여 설립한 일본 최대의 도판명화(도자기로 된 큰 판에 작품을 재현한 것) 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은 6명의 선정위원이 고대 벽화부터 세계 25개국 190여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현대 회화 작품까지 서양화 약 1,074점을 오츠카 오미도업 주식회사의 특수기술에 의해 원작과 같은 크기로 재현하고 있다.

일본 최대의 상설 전시 공간으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오츠카 국제미술관. 유럽 전역을 다 돌아야만 볼 수 있는 명화를 이곳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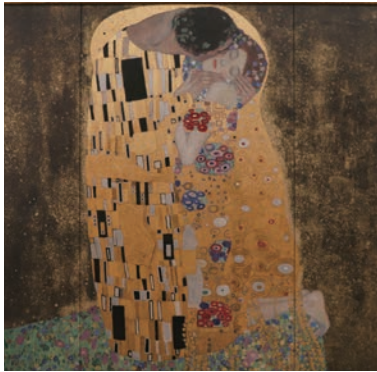


미술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사로잡은 곳은 바티칸시국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을 재현한 홀이었다. 원래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그대로 담아낸 모습에 시선을 빼앗겼다.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품은 시스티나 성당의 대표적인 그림,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였다. 오츠카 국제미술관의 작품은 도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이어 붙인 흔적이 보이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실제 작품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서양 미술품을 볼 수 있는데, 네덜란드 출신의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작품 역시 오츠카 국제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짧은 생애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명인 고흐의 대표작 <자화상>, <아를의 반 고흐의 방>,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을 감상할 수 있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의 작품 <피리 부는 소년>은 회색 배경 앞에 모자를 쓰고 붉은 바지를 입은 작은 키의 소년이 도드라져 보이는 그림이다. 이 작품은 일본의 판화가 우타마로처럼 검은색, 붉은색, 흰색을 사용하여 인물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지하 2층으로 연결된 외부 공간으로 나가면 모네의 <대수



련>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품과 더불어 근사한 야외 정원에서 산책도 즐길 수 있다.

오츠카 국제미술관의 전시 작품은 도판화라 2,000년 이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저작권료만 연간 1,0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이곳

을 방문한 피카소의 아들과 미로의 손자, 그리고 각국의 미술관 관장과 관원들은 미술관과 작품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고 하는데, 기술뿐만 아니라 기발한 구상에서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오츠카 국제 미술관이다.

## 버려진 섬에 숨결을 나옴시마 이에 프로젝트

일본의 4개 주요 섬 중 가장 작은 섬 시코쿠에는 예술의 섬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바로 가가와현(香川県)의 나옴시마(直島)다. 예전에 구리 제련소가 있던 나옴시마는 사람들이 섬을 떠나며 버려진 섬이 되었다. 하지만, 일본 교육 출판 기업 '베네세'가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나옴시마를 문화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1989년 시작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나옴시마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이에 프로젝트'다.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를 비롯해, 섬 곳곳은 예술가들의 손길이 닿으면서 변하기 시작했고, 외딴 섬마을은 현재 한 해에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

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일본어로 '이에(家)'는 집을 뜻한다. 즉, 집과 예술을 결합하여 하나의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는 아트 프로젝트다. 이에 프로젝트는 1998년 나옴시마 섬의 중심에 있는 혼무라 지구에서 시작되었다. 나옴시마에 있는 7채의 빈집을 선정하여 건축가와 예술가의 손길로 현대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나옴시마의 빈집을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시켜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기억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단순히 공간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빈집의 역사와 이야기를 남기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함께 작품 활동을 하는 등 나옴시마 섬의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가도야

가도야(角屋)는 이에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약 200년 전에 지어진 집을 복구한 작품이다. 불이 꺼진 내부로 들어서면 다다미방 바닥이 얇은 물로 채워져 있고, 색색의 디지털 숫자가 반짝인다. 각각의 숫자가 움직이는 속도나 형태도 모두 다른데, 이것을 정할 때 마을의 최고령자인 95세 할아버지와 5세 어린이 등 주민도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





**복원 감독** 아마모토 다다시(山本忠司)

**작품** 미야자마 다쓰오(宮島達男) 〈Sea of Time '98〉,  
〈Naoshima's Counter Window〉, 〈Changing Landscape〉

## 고오 신사

에도 시대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고오 신사(護王神社)를 스키모토 히로시가 2002년 복원과 동시에 설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유리 계단을 통해 신사와 신사 아래의 지하 공간이 이어져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아무래도 신사라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작가가 최대한 신사의 원래 모습을 살리려고 노력하여 현재는 마을 사람들도 아끼는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

**복원 감독** 스키모토 히로시(杉本博司)

**설계 협력** 기무라 마사루(木村優), 시타라 도시오(設楽敏生)

**작품** 스키모토 히로시(杉本博司) 〈Appropriate Proportion〉

## 하이샤

언뜻 보면 고물상 같기도 한 외부의 모습이 이목을 끄는 하이샤(はいしゃ). 치과의사라는 뜻의 하이샤는 한때 치과의사의 집과 사무실이었다. 이 작품을 설계한 오타케 신로는 건물 전체를 조각이나

그림, 콜라주, 스크랩북과 같은 다양한 양식적 요소로 채웠다.

**공간 디자인** 오타케 신로(大竹伸朗)

**설계 협력** 아키토모 유지(秋元雄史), 혼다 다다카쓰(本多忠勝)

**작품** 오타케 신로(大竹伸朗) 〈설상몽 / 복콘노조키(舌上夢 / ポッコン覗)〉

## 이시바시

메이지 시대에 제염업으로 번성한 이시바시(石橋) 가문의 저택을 재건축한 작품이다. 일본화의 대가 히로시 센주의 작품이 이시바시를 무대로 전시되어 있다. 눈여겨볼 작품은 〈폭포〉로 작가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발표한 작품을 재현한 것으로 가로 폭 15m의 대작이다. 인공적인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 작품을 감상하면 된다.

**공간 디자인** 센주 히로시(千住博), 아키토모 유지(秋元雄史)

**설계 협력** 후쿠타케 소이치로(福武總一郎), 혼다 다다카쓰(本多忠勝)

**작품** 센주 히로시 〈The Falls〉, 〈공의 정원(空の庭)〉

## 미나미데라

미나미데라(南寺)는 새로 지어진 건물로 이에 프로젝트의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기존의 집을 활용하지 않았다. 원래는 5개의 절과 사당 그리고 성곽의 폐허가 남아 있던 장소인데, 절을 허물고 그 자리에 안도 다다오가 새로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또, 미나미데라는 이에 프로젝트 중 유일한 체험형 공간이다. 칙칙같이 캄캄한 내부를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벽을 손으로 만지며, 한 발자국씩 이동해야 한다. 눈을 떠도 감아도 어두운 건 같다. 시간이 지나고 어둠에 익숙해져 시야가 조금씩 보이는 특이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새삼 빛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다.

**설계 협력** 안도 다다오(安藤忠雄)

**작품**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Backside of the Moon〉



문화행사  
미코토 MIKOTO 인터뷰



## 음악은 우리 마음을 이어준다

지난 1월 26일(토) 제16회 일본가요대회 본선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진행되어, 3일간의 예선을 거쳐 선발된 15팀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호에서는 축하공연 아티스트로서 한국을 방문한 미코토(MIKOTO) 씨와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코토입니다. 아티스트로서 보컬리스트와 작곡, 작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의 여성 취향 콘텐츠 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는 자주 오시나요.

사실 한국은 첫 방문입니다. 일본보다 춥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갑을 챙겨왔어야 했는데, 손이 시리네요(웃음). 해외 활동은 작년에 2차례 업무차 중국을 방문한 정도이지만,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한국에도 자주 오고 싶습니다.

### 아티스트로서 작사, 작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전을 좋아해서 음악 방송이나 애니메이션 주제곡 등을 자주 듣다 보니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으로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지만,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도 음악은 기억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음악의 힘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로 어떤 곡을 쓰고 있는지.

처음에는 신인이라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곳에 제 곡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결과 제 곡의 하나가 선택이 되어 이후 애니메이션 곡의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TBS 애니메이션 'BAKUMATSU'의 오프닝 주제곡인 'Spiral Maze'로 4번째 싱글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 음악 활동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즐겁게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적으로도 깊이 생각하기보다, 일상적으로 떠오르는 멜로디를 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말도 통하지 않고, 어떻게 노래를 전하면 좋을지 걱정했는데, 막상 와보니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언제나처럼 자연스럽게 공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 작곡가로서 J-POP 아티스트를 비롯해서 K-POP 아티스트에게도 곡을 제공하는 등 양국의 음악 교류에도 종사하고 계시는데.

회사로 곡을 모집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제 노래를 보냈더니 선택되었습니다. K-POP 아티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연한 기회를 계기로 곡을 주게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곡은 제게 직접 의뢰가 와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미코토 씨의 디지털 음원이 한국의 음원 서비스로도 제공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활동할 계획은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일본에서 활동하는 K-POP 아티스트의 코러스를 일본어로 레코딩 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국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 축하 무대를 마친 소감은.

솔직히 '기쁩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여러분과 시공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고, 그 자리에 음악이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으로 매우 기쁩니다. 오늘 공연장에 오신 분과 J-POP의 만남도 제각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되면서 J-POP을 듣기 시작했다거나, 일본어 공부를 하다 우연히 일본 아티스트를 알게 되어, 장르를 불문하고 여러 음악을 듣다가 J-POP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여러 우연이 겹치면서 오늘 처음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우연에 감사하는 하루였습니다. 저도 일본 음악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양국의 유대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한국의 여러분께 더 멋진 음악을 선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의 목표나 꿈이 있다면.

음악이란 사람의 마음에 영원히 남아있으면서, 국경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고 감정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한국에 또 오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지역에 있는 라이브하우스 등을 방문했으면 합니다. 또, 제가 록 밴드부터 음악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 분야의 관계자와도 만나고 싶습니다.







가장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대동단결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심동지동 좌충우돌 유학 여행기

#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섬의 인구는 약 400명, 섬에 살고 있는 고양이이는 약 200마리, 사람과 고양이가 공존하는 일명 고양이 섬 구마모토현 유시마(湯島). 하지만 유시마를 단순히 고양이들의 낙원으로만 알고 있기에는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오옷! 섬에  
발이 닿기도 전에  
아옹이 떼가 버선발로  
우리를 맞아주네요~

항구 선착장 주변에는 섬주민들이 손수 만든 고양이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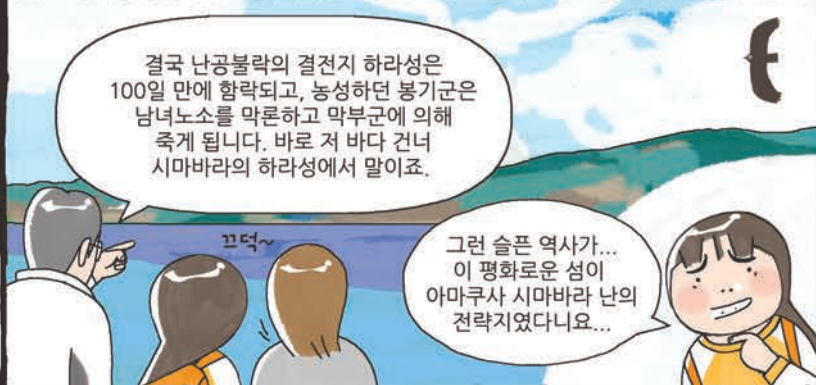
유시마의  
또 다른 이름은  
담합섬이에요.

이 사람이  
아마쿠사  
시로...

역사는 약 3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1637년, 과도한 세금과 천주교 박해, 엄청난 데 덮친 격으로 기근 등의 천재지변까지 더해져, 고통 속에 울부짖던 백성들은 마침내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아마쿠사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한다.



전설의 인물 아마쿠사 시로(天草四郎)가 각지에서 모여든 봉기군 대표와 유시마에 집결하여 대동단결을 도모했다 하여, 유시마는 담합섬(談合島)이 되었다. 하지만 3만 7천 명의 농민과 천주교 신자를 응집시키고 진두지휘한 사람이 고작 16살의 어린 소년이었다니 믿어지는가?



결국 난공불락의 결전지 하라성은  
100일 만에 함락되고, 농성하던 봉기군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막부군에 의해  
죽게 됩니다. 바로 저 바다 건너  
시마바라의 하라성에서 말이죠.

그런 슬픈 역사가...  
이 평화로운 섬이  
아마쿠사 시마바라 난의  
전락지였다니요...

현재 유시마는 어민과 고양이가 어울려 공생하고 현직 해녀가 운영하는 민박과 식당에서는 직접 잡아올린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먹을 수 있다.



바다향이 입안으로 짹~  
님아~ 지금까지 먹어왔던  
냉동 성게는 잊어주요~

1000엔 한장으로  
전복, 성게 등의  
해녀정식 런치를  
먹을 수 있답니다~

\*시마바라 반도의 하라성터는 재작년 잠복 천주교도 관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시마는 이 밖에도 해풍을 맞아 달콤한 무, 참돔 그리고 바다거북이의 산란지로도 유명하다.



바다거북이가 알을 낳으러 이곳  
모래밭에 오고 있는데 갓 부화한  
바다거북이가 바다로 돌아가는 광경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스럽습니다.  
하지만 매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운이 좋아야만 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보니  
유시마는 섬의 모양도  
거북이 모양이네~!

알을 낳기 위해  
엄마의 품으로?  
오~ 바다거북이를  
천재네?

\* 애묘인들께- 이달 유시마에서는 프로 사진작가 강사를 모시고 고양이 출사를 나간다는 공알 정보~\*

유시마는 지금, 고양이들이 귀여움으로 대동단결 담합하는 담합섬이 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귀여운 우리  
외면하기 있기 없지?

\*취재에 동행해주시신 아마쿠사 시로 관광협회 요시나카님, 아마쿠사 다카라지마 관광협회 하마사키님께 감사드립니다.